

Sh수협銀, 글로벌 첫 사업 '미얀마 소액대출' 스타트

미얀마 현지 MFI 법인 설립

15세 이상 은행계좌 보유율 22%
낙후된 금융산업 인프라구축 절실

이동빈 행장 "고객 신뢰 최우선"
수산기술 전파 등 영역 확대 추진

Sh수협은행이 야심차게 준비한 글로벌 진출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Sh수협은행은 지난 16일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서 소액대출(Micro Finance Institution·MFI) 법인인 '수협 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법인장 이명섭)' 설립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지난 7월 31일 미얀마 정부로부터 현지 MFI 법인 수협 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의 설립과 영업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빤마나 본점을 중심으로 레위와 딱끈 두 곳에 영업점을 개설해 소액대출 영업을 준비해



Sh수협은행은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 소액대출(Micro Finance Institution, MFI) 법인 '수협 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를 설립하고 지난 16일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동빈 수협은행장(두번째 줄 오른쪽 다섯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성이 참석해 수협 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이동빈 행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진심을 담아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을 펼쳐 달라"고 당부하고 "이를 위해선 미얀마의 법규와 문화를 준수하고, 각종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고객에 대한 밀착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미얀마는 해안선이 2000km에 달하는 만큼 현지법인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이후 수협 중앙회와 손잡고 해안지역으로 영업력을 확대해 선진 수산기술을 전파하고 선박대출 등 해양수산금융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며 "더불어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으로 글로벌 거점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왔다.

신(新)남방 지역에 남은 '마지막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미얀마는 지난 2011년 민간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개방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개발 계획과 맞물려 외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금융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15세 이상 인구의 은행 계좌 보유율이 22% 수준에 그칠 정도로 금융산업이 낙후된 상태다. 특히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금리가 월 10~15% 수준인 사금융시장을 이용하고

있어 미얀마에서 소액대출은 일종의 서민금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날 소액대출 법인 설립 기념행사에는 이동빈 수협은행장을 비롯해 이상화 주 미얀마 대한민국 대사, 우 마웅마웅원 미얀마 기획재정부 부장관, 우 조나잉 미얀마 연방 FRD 국장 등 관계자 60

하나은행, AI '하이뱅킹' 서비스 고도화

개인화 마케팅 기반 마련

12월까지 한끼대첩 이벤트

KEB하나은행은 인공지능 하이(HAI)뱅킹 서비스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해 손님 이용 프로세스 개선과 개인화 마케팅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와 함께 12월말까지 이벤트도 실시한다.

대화형 뱅킹 서비스인 하이뱅킹은 지난해 11월 챗봇을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됐다. 문자입력·음성입력·카메라활영을 통해 손님의 각종 금융거래 요청을 인공지능 금융비서 'HAI'가 문자 및 음성으로 답변한다.

이번 서비스 고도화로 가입 및 인증 프로세스를 간소화해 챗봇에서 직접 하이뱅킹을 쉽고 편리하게 가입하고, 간편이체를 위한 별칭등록을 대화를 통해 등록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KEB하나은행의 환전지갑과 동일하게 환전거래 시 거래 가능 통화를 21개까지 확대하고, 보관 및 재환전까지 챗봇과 대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이체거래 및 공과금 납부시에는 보안카드·OTP입력 절차 없이 거래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한편 고도화에 맞춰 오는 12월말까지 '새로워진 하이와 함께하는 한끼대첩 이벤트'도 실시한다. 하이뱅킹으로 예·적금 가입, 세금납부, 송금, 외화환전 등 종족하는 조건에 따라 추첨을 통해 최대 20만 하나머니 등의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하며, 대화(거래)를 많이 한 손님 대상으로 5000 하나머니를 10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빅데이터 플랫폼과 하이뱅킹을 연계해, 손님에게 챗봇을 통해 개인화된 알림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이를 통해 KEB하나은행은 챗봇 채널 기반의 마케팅 프로세스를 갖춰갈 계획이다. /홍민영 기자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M' 내달 출시

금융·통신 결합 혁신 서비스 이달 임직원 시범 운영 시작

KB국민은행은 다음달 내놓는 가장 이동통신망(MVNO)서비스 브랜드명을 '리브(Liiv) M'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의 MVNO 기반 서비스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바 있다.

금융권의 첫 알뜰폰으로 불리는 '리브M'은 이달 임직원 시범 운영을 시작

으로 10월 중 대고객 론칭 예정이며,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브랜드명 '리브M'의 'M'은 ▲온라인 금융거래의 간소화를 만들고(Make) ▲ 고객에게 최고의(Most) 서비스를 선사하며 ▲더 많은(More) 소비자 경험과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리브(Liiv)는 KB국민은행의 디지털 뱅킹 브랜드다. '모바일에서 경험하는 금융라이프 스타일(Life-styling, Integrated, Interesting, Valuable)'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현재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종류별로 중도상환에 따른 기회손실이 다른 점을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보통 취급 후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과 달리 5년 이상 부과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1월부터는 대출종류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상한 2%)을 차등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토록 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도 최

우리금융, 글로벌 非대면 리테일 영업 강화

모바일뱅킹 앱 고도화 개발 착수 내년 상반기 중 베트남부터 확장

우리금융그룹이 비대면 채널 중심의 글로벌 리테일 사업 성장을 위해 글로벌 모바일뱅킹 앱 고도화 개발에 착수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7년 3월 베트남, 인도 등 국외 영업점을 대상으로 글로벌 모바일뱅킹 앱을 출시해 예·적금 가입 및 대출과 현지 디지털 기업 제휴를 통한 전자지갑 충전, QR 결제, 선불폰 요금 충전 등 각 국가에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글로벌 모바일뱅킹 고도화

화를 통해 고객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구현, 휴대전화를 훈들어 거래할 수 있는 모션뱅킹 등 사용자가 편리한 모바일 특화 금융 서비스와 여·수신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베트남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고도화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인도 등 국가로 확산될 예정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글로벌 핵심 거점 국가인 베트남에서 디지털 금융을 활용한 리테일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베트남 우리은행은 현지 특화 모바일 신용대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바일 중심의 비대면 영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베트남 국가신용정보센터(CIC)의 신용정보 및 통신사 데이터를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한 개인신용평가 모형을 도입했다.

/홍민영 기자

저축은행, 내년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차등화

금감원, 불합리한 관행 개선 부과기간도 최대 3년 내 운영

저축은행이 내년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차등화하고, 부과기간도 줄인다. 이와 함께 그간 차주가 대부분 부담하던 담보신탁 수수료도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종류별로 중도상환에 따른 기회손실이 다른 점을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보통 취급 후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과 달리 5년 이상 부과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1월부터는 대출종류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상한 2%)을 차등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토록 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도 최

<담보신탁수수료 부담관행 개선 전·후 비교>

개선전		발생비용	개선후	
저축은행	차주		저축은행	차주
	○	등록면허세	○	
	○	지방교육세	○	
○	○	인지세	○	○
	○	등기신청 수수료	○	
	○	법무사 수수료**	○	
○		감정평가 수수료**	○	
	○	신탁보수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40	63.62	부담비용* 합계	100.12(+60.12)	3.5(△60.12)

*담보신탁대출 1억원 가정시 / **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기준표', 국토부 '감정평가수수료기준표' 참조

대 3년 내에서 운영토록 개선한다.

만약 A씨가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뒤 중도상환한다고 가정하자.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기존 2%에서 1.5%, 부과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차주 부담액은 기준 1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업권 전체 중도상환 수수료

절감액이 연간 4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중도상환 수수료율과 부과기간에 대한 고객안내도 강화한다. 상품설명서 등에 중도상환 수수료율과 부과기간을 차주가 직접 기재토록 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0영업일 전에 안내 문자도 발송토록 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